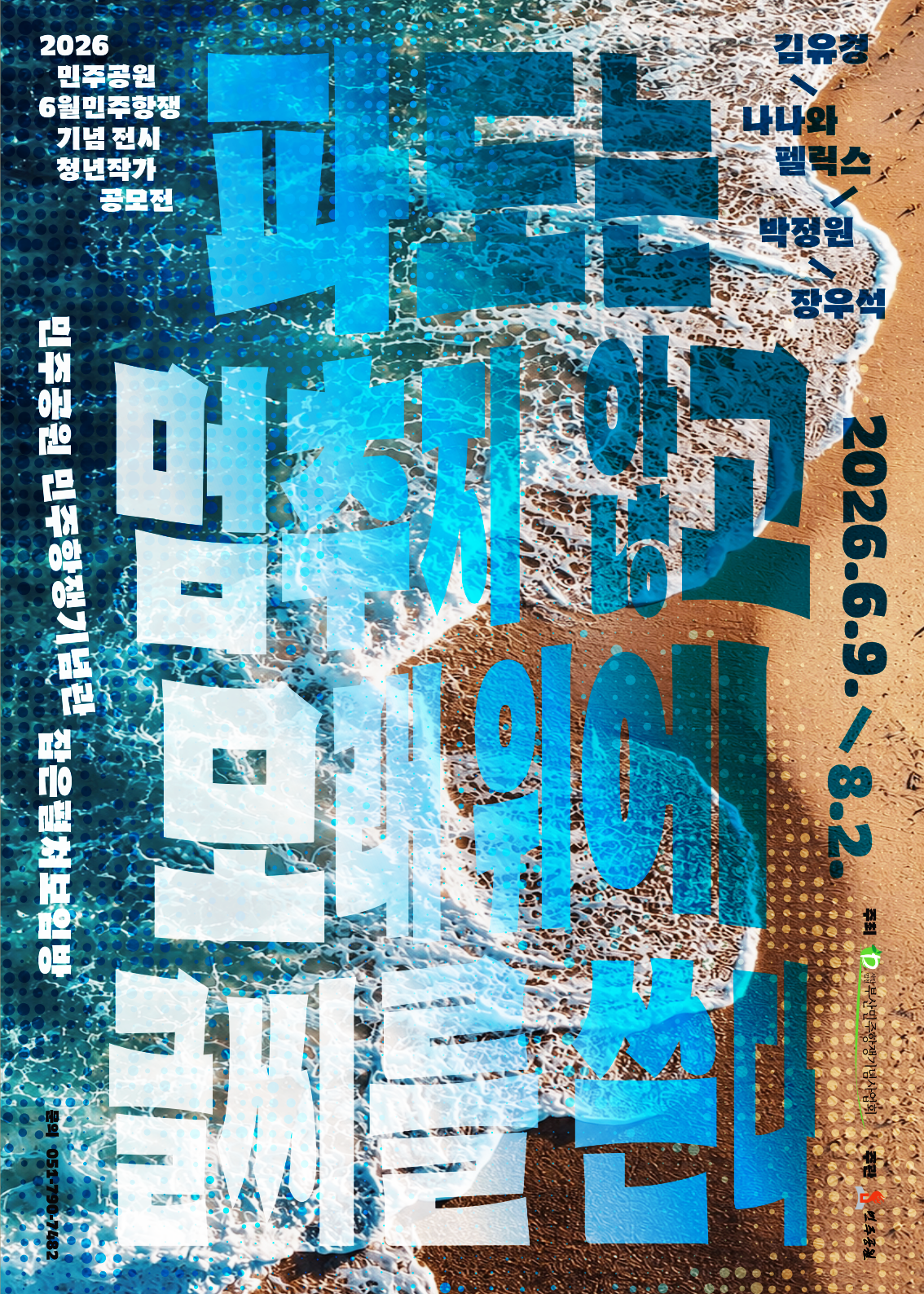

2026
민주공원
6월민주항쟁
기념 전시
청년작가
공모전
김유경
/
나나와
펠릭스
/
박정원
/
장우석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광주트라우마센터
2026.6.9. ~ 8.2.
주최
부산시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민주공원
문의 051-790-7482

기획의 글

1987년 6월민주항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거리에서 이어진 수많은 목소리와 실천은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예술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고자 했다. 당시의 민중미술은 노동과 공동체, 삶의 현실과 시대의 문제를 작업 안으로 담아내며 동시대의 감각을 예술의 언어로 기록하고자 했고, 이는 이후 사회 참여적 예술의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모래 위에 글씨를 쓴다》는 이러한 흐름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지워져도 다시 밀려오는 파도의 움직임처럼,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축적되며 다음 시대의 감각 위에 겹쳐 왔다. 모래 위의 글씨는 쉽게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반복해서 밀려오는 파도는 보이지 않는 흔적과 지층을 남긴다. 이 이미지는 1987년 6월민주항쟁이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세대의 삶과 감각 속에 축적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은유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과거 민중미술의 형식을 단순히 재현하거나 반복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사회와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감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대의 예술 안에서 민중미술의 맥락을 어떻게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는 민중미술을 특정 시대의 양식으로 고정하기보다, 사회와 관계 맺으려는 태도와 실천의 흐름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동시에 전시는 1980년대 현장에서 작업해 왔던 민중미술 세대에 대한 존경과 기억 위에서 출발한다. 민주공원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과거의 실천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예술가들과 연결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번 청년작가 공모전 역시 그 연장선 안에서, 동시대의 감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되었다.

공모에 선정된 작업은 오늘의 사회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각자의 언어와 매체를 통해 드러낸다. 작업들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구조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서로 다른 감각으로 현재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참여 예술은 오늘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유경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기억에서 출발해, 역사적 폭력이 오늘의 삶과 감각 속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탐색한다. 펠트 위에 반복적으로 축적된 화면은 지층처럼 쌓인 시간과 기억의 흔적을 드러내며, 여전히 이어지는 감각의 잔향을 조용히 환기한다. **나나와 펠릭스**는 서울과 헬싱키의 대기질 데이터를 회화로 기록하며, 세계화와 환경 불평등 속 인간의 삶과 시간을 시각화한다. 반복적인 노동으로 축적된 회화는 보이지 않는 공기와 사회 구조를 드러내며,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과 감각을 공유하는지 질문한다. **박정원**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과 상실의 현실을 회화와 드로잉으로 기록하며, 애도와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상실을 기억하는 시공간을 만들고, 사라진 존재를 기억하는 순간들이 연대의 감각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장우석**은 사회적 사건과 이슈 속 인간 군상의 풍경을 미니어처 설치를 통해 재구성한다. 관람자는 장면 사이를 직접 지나며 목격자의 위치에서 오늘의 현실과 사회의 불안한 감각을 마주한다.

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발생하는 감각과 흔적에 주목한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와 현실의 관계를 기록하고 질문하며, 사라지는 듯 보이는 목소리와 기억들이 여전히 현재 안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모래 위에 글씨를 쓴다》**는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다시 다음 시대의 감각이 되어 남겨지는 과정을 함께 바라보고자 한다.

작가노트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과거,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할아버지가 겪은 전쟁기의 기억은 내가 역사에 접근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의 경험담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더욱 선명한 감각으로 되살아났다. 일제강점기 당시 외할아버지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팔라우 섬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머물던 이 열대의 섬에는 주말이나 휴가 때 일본 해군이 방문하곤 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떠오르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을 서로 다르게 경험했던 존재들의 감각이다. 열대의 강한 햇빛은 모두에게 내리쬐었지만, 누군가는 그늘로 물러날 수 있었고 누군가는 끝없이 햇빛 아래에 남겨진 채 묵묵히 노동해야 했다. 외할아버지는 끝내 그늘로 이동할 수 없었던 사람, 다시 말해 그림자처럼 대지와 역사 위에 흔적으로 남겨진 존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태평양의 작은 섬들에는 당시 섬의 원주민과 식민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건설한 활주로와 진지, 상륙장의 잔해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전쟁의 희생자를 기리는 묘와 추모비, 신사 또한 곳곳에서 발견된다.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연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파괴하지만, 자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간의 문명에 적응하며 그 흔적을 서서히 잠식해 간다. 전쟁과 열대의 흔적이 뒤섞인 이 풍경은 언뜻 고요하게 보이지만, 남겨진 활주로와 장소들은 오늘날 다시 미군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작품에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기지와 돌산의 풍경이 담겨 있다. 자연 풍경과 역사적 기억이 맞닿아 있는 이 장면들은 장소에 축적된 근현대사의 상흔을 드러내며, 사라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현재를 통과하고 있는 시간의 흔적들을 환기한다. 이러한 풍경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이어간다.

김유경

Kim, Yu kyung



The Upside-Down Mountain(of stone), 천에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5-2026



땅과 주름진 밤, 천에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5



땅과 주름진 밤, 천에 혼합재료, 112×112 cm, 2025



상상할 수 없는 것, 침묵을 강요당한 것, 알려지지 않은 것, 구출하는 것,
천에 혼합재료, 31.8×40.9 cm, 2026



Ink Cell Column, 혼합매체, 가변설치, 2026

김유경

김유경은 부산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2014-)에서 본격화한 ‹고스트› 시리즈를 비롯해, 아시아 회화의 전통 재료를 바탕으로 폐허, 생태, 기억이 교차하는 풍경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오고 있다. «Tropical Maladys»(2023, 상업화랑, 서울), «세 개의 껍질과 하나의 둥근 것»(2021, 학고재아트센터, 서울), «교차들의 비»(2019, 갤러리조선, 서울) 등에서 주요 개인전을 열었고,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2025, 문래예술공장, 서울), «신선한 유산, 예술로 미래를 열다»(2025,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 «중심의 전환»(2023, 토탈미술관, 서울), «어느정도 예술공동체»(2022, 울산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아르코 청년예술가(2020-2021), Art Asia Emerging Artists(2019), 의정부예술의전당 YOUNG ARTISTS(2016), 이랜드 문화재단 청년 작가상(2015) 외 다수 선정된 바 있다.

작가노트

나나와 펠릭스

나나와 펠릭스는 2013년부터 활동해 온 한국-핀란드 국적의 아티스트 듀오로, 현재는 부산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인간이 만든 문화적 풍경, 특히 '진보'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와 사회의 모습을 기록해 왔다. 한국 도시 풍경의 폭력적 변화와 그 안에 교차하는 희극과 비극의 아름다움은 이들의 주요한 작업 원천이며, 이러한 탐구는 곧 사회 속에 자리한 '발전의 미학'을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나나와 펠릭스는 다큐멘터리적 기록성과 데드팬의 시선을 바탕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이미지, 소리, 인상, 버려진 파편들을 수집·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시 자체가 하나의 풍경이자 작품으로 완성되도록 한다. 철거 지역의 잔해, 폐기된 가스 배관, 도시 기반 시설, 버려진 액자와 사진 등은 이들의 작업 안에서 새로운 조형과 풍경으로 재해석되어 왔다.

회화설치 작업 ‹SEL2020HEL›은 이러한 작업 세계를 바탕으로 오늘의 사회 구조와 인간의 위치를 질문한다. 서울과 헬싱키의 대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작업은 세계화와 기술문명, 환경 불평등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떤 구조 안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다. 이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오늘날의 노동·환경·기술 문제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또한 작품은 1년간 매일 2점씩 제작한 732점의 회화를 통해 개인의 시간과 노동을 기록하며,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의 공기와 호흡의 문제를 공동체적 감각으로 연결한다. 민주공원이라는 장소 안에서 ‹SEL2020HEL›은 "지금 우리는 어떤 공기를 마시며 어떤 삶을 공유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민주항쟁의 연대와 발언의 정신을 동시대적 언어로 다시 호명한다.

Nana&Felix



SEL2020HEL, 캔버스에 아크릴, 총 732점 각각 15×18 cm(한 쌍 15×36 cm), 2020



SEL2020HEL(2020년1월6일), 캔버스에 아크릴,
총 732점_각각 15×18 cm(한 쌍 15×36 cm), 2020



SEL2020HEL(2020년11월16일), 캔버스에 아크릴,
총 732점_각각 15×18 cm(한 쌍 15×36 cm), 2020

작업노트

나나와 펠릭스 각자의 고향이자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화, 기후, 사회적 관습 등이 상이한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공기오염이나 인구과잉과 같은 개념에 익숙지 않은 도시이고, 대한민국의 서울은 유해한 스모그가 거의 일 년 열두달을 잠식하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에게, 매일의 대기오염이란 공상과학영화 속에 존재하거나, 간간이 국제 뉴스에 등장하는 잿빛 안개 속 중국이나 인도의 사진으로, 즉 지구 반대편에서 인류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들만 겪는 상황으로서, 다소 황당한 또는 종말적인 이미지로 인식된다. 한국과 핀란드는 물론이며 세계 전역에서 소비되는 전자제품부터 광물, 생필품, 중공업, 쓰레기처리 심지어 성경 인쇄까지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해 내는 중국 옆에 위치하는 한국에서, 또한 한국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산업공해와 뒤섞여, 매년 특정한 계절에 상관없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것은 솔직히 살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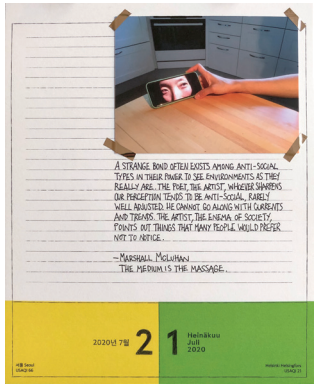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에 제안하는 총 732점의 회화 시리즈 ‹SEL2020HEL›은 이러한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경제 체계에 단단히 묶인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세계의 1년 동안 공기질의 변화를 300가지의 컬러-코드화된 파노라마 풍경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개념미술 회화의 대표적 작가, 온 가와라의 ‹오늘 연작›에서 영감을 얻은 작업 형태와 방식을 가지고, 날짜뿐 아니라 대기질 지수가 갖는 추상적인 개념과 정보를 물감과 캔버스라는 물질적 상태로 변환시킨다. 1년의 작품 제작 기간 동안 휴일 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쫓아 매일 반복되는 작업 노동을 거치며 만들어지는 이번 회화 시리즈는 우리의 삶과 일 그리고 시간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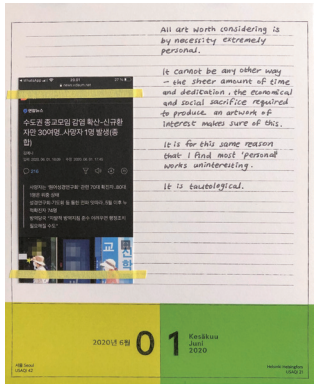
본 회화 시리즈는 2018년부터 여러 단계의 계획과 실험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제작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시리즈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 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의 산업이 멈춰 서면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공기오염도는 지난 수년간의 공기오염을 부정하듯이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 묘사한 이번 작업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더욱 길어지고 강해진 장마, 태풍, 겨울의 온난화 등)를 보여주고, 2020년의 특별한 일기로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나와 펠릭스



SEL2020HEL 일기, 아티스트 북: 디지털 및 잉크젯 인화, 종이에 펜, 파일 바인더, 보관용 케이스, 전체 약 41×23.5×17 cm; 각각 3.5×23.5×17 cm(총 12개) 에디션 30 + A.P. 2, 2021







나나와 펠릭스는 2013년부터 활동해 온 한국-핀란드 국적의 아티스트 듀오이며, 현재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작업 중이다. 두 작가 모두 핀란드의 알토대학원 예술사진학과를 졸업(2014)하였으며, 아티스트 듀오로서 작업을 시작한 후 국내외 유수 국공립 기관에서 꾸준한 전시를 통해 예술 경력을 쌓아왔다. 최근의 주요 전시로는 서울사진축제 «컴백홈»(2026, 서울시립사진미술관), «Trial Without Error»(2025, 무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헬싱키), «문명의 이웃들»(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건축의 장면들»(2024,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아래로부터의 생태예술», «버릴 것 없는 전시»(2023,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3회 미따 컨템포러리아트 비엔날레»(2023, 요엔수미술관, 핀란드) 등이 있다. 듀오는 제6회 포스코미술관 신진 작가상 대상(2021)을 수상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기금(2023) 외 국내외 다양한 기금을 받으며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작가노트

2024년 여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다. 스물세 명의 사망자 중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였다. 이제는 정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기에, 사람들은 '아리셀 화재 참사'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고쳐 부르곤 했다. 겨울의 초입에는 계엄 사태를 맞이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광장의 열기 속에서, 많은 것이 달라진 한편 많은 것은 그대로였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계엄 이전에 이미 고공농성 1년을 넘긴 한국옵티칼도 있었다.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부당 해고 없이 일할 권리를 외치는 사업장들이 있는 한편 노동안전보건소식 텔레그램 채널에는 매일같이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떴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일하던,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반도체를 만들던, 대기업 공장에서 빵을 만들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이주 아동 출신이기에 국가가 지정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죽었다.

2025년 3월 6일, 반도체 노동자였던 故 황유미 씨를 비롯한 114인의 전자산업 노동자를 기리는 추모대회가 열렸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였다. 황유미 씨가 떠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대기업 주도 하의 반도체 노동 현장은 개선되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날의 애도는 투쟁이 되어 버렸다. 집회의 말미에, 연대인들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114개의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영정 사진과 함께 노동자의 이름, 사망 연도, 나이, 질병의 이름, 그리고 가해 기업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꽃샘추위 속, 해가 일찍 저물어 어두운 하늘 아래서 흰 방진복을 입은 연대인들의 모습은 얼핏 유령처럼 보이기도 했다. 피켓을 든 연대인들의 행진은 삼성반도체 본사 앞에서 출발해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이 있는 신호등 철탑에서 끝이 났다.

일상의 시공간, 존재와 존엄, 관계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 늘 반복적으로 닥치는 것은 상실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간직하며 애도할 수 있는 시공간을 결코 내어주지 않는 차가운 사회였다. 그것은 상실을 겪은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폭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체제가 남겨진 이들로부터 빼앗은 애도의 시공간을 다시 마련해야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들이 존재했던 과거를 간직하고자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이별을 반복하지 않을 미래를 함께 약속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박정원

Park, Jeong won

어느 시기 이후에는 늘 애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애도라는 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애도를 해야 할까. 이미 떠나버린 삶 앞에서, 상실되어 버린 일상 앞에서, '영원함'이라는 거대하고 끝없는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 어쩌면 회화를 통해 할 수 있는 애도는, 어떤 순간의 재현을 통해 찰나의 연대의 감각을 확인하는 것, 그 정도일지도 모른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찰나의 순간이 수없이 모이면 연속적인 시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다. 파도의 연속이 결국은 끝없는 바다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연대와 애도의 시공간 속에서 떠나간 대상에 대해 묵상默想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림을 통해 그 시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폭력과 상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동작일지 모른다.



삼성반도체 본사 앞, 캔버스에 유채, 80.3×116.8 cm, 2025



우리가 만나는 순간, 캔버스에 유채, 72.7×90.9 cm, 2025



합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캔버스에 유채, 80.3×116.8 cm, 2025



에코의 초상, 캔버스에 수채,
53×45.5 cm, 2025



2025년 6월 24일, 캔버스에 유채,
53×45.5 cm, 2025

박정원

박정원은 작가이자 활동가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노동자, 비국민, 홈리스, 철거민, 참사 피해자와 같은 타자들의 사회적 투쟁 현장에서 활동하며, 현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구조적 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의 장면을 기억하는 수행적 행위로서 회화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대에 일어나는 국가와 체제로 인한 구조적 폭력을 상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상실에 맞서는 타자들이 만들어내는 애도와 연대의 시공간을 회화를 통해 재현하고 확장한다. 개인전 «파도 같은 움직임으로»(2025, 서울대학교 우석갤러리), «메아리가 머무는 곳»(2023, 예술공간 의식주)을 개최했으며, «2025 거리미술제»(2025, 5·18 민주광장), «드로잉-그로잉»(2025, 통의동 보안여관), «침묵을 깨고: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전»(2024, 상업화랑 용산), «오래된 거리처럼 사랑하고»(2024, 스페이스 미라주)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예술공간 의식주 개인전 작가 공모'(2023), '아트스페이스 신사옥 살롱 작가 공모'(2026) 등에 선정되었다.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 야학'(2026-),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2025-), '홈리스 야학 교사회'(2023-), '아카이브 평화기억'(2023-2024) 등에서 활동했으며,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구술기록 - 우리는 그곳에서 일했다›(2026-)의 삽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노트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실을 외면한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갖지 못한다. 나는 이런 현대인들의 무기력한 태도를 조롱하고 싶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순간, 거짓은 힘을 얻어 정의처럼 행세한다. 나는 시대에 묻고 싶다. '왜 우리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그저 눈앞의 진실조차 회피하려 하는가?'

스틸 컷은 주관적 진실의 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나의 작업 시리즈 '스틸 컷(Steal Cut)'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작가 데뷔 초기에는 전통 초상화 기법을 활용하여 세세한 인물의 표현이 중심인 작업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목도한 후 프레임을 깨고 사회적 이슈와 사건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폭식 투쟁'을 우연히 목격했을 때, 나는 인간의 잔인함과 동시에 그 앞에서 무기력한 나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거짓의 숭배를 바라보며 단순한 분노를 넘어, 나에게 '진실'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진실은 믿는 순간 참이 되는 것일까? 진실이 곧 정의가 될 수 있는가? 혹은 진실과 정의가 뒤섞이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이상 역사의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죄책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 ‹스틸 컷›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된 고해성사 같은 시리즈다. 나는 이 시대의 부조리함을 기록하는 '기록화가'로 칭하고 있다. 내가 인식한 '진실'을 구분하고 바라보는 이들과 시대를 증언하고자 한다. 단순히 사건의 잔혹함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혹함에 무감각한 우리의 태도, 이 세계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다년간 개인전을 중심으로 진실의 다양한 해석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2024년 «STEAL CUT-진실의 탐닉»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강렬한 빛과 어둠, 소음이 뒤섞인 공간을 연극 무대와 같이 연출하여 빛으로 가려진 인물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관람객이 스스로 빛을 등져 그림자를 드리워야만 했다. 오직 직접 개입하고, 거닐고, 살펴볼 때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장우석

Jang, Woo seok

전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음과 누군가의 절규는 일상과 사건이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관람객은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군중의 일부가 되고, 그들의 삶에 감정이입 하며, 내가 가졌던 진실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스틸 컷'은 단순한 이미지의 재현이 아니라,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당연함을 새삼 인식하게 하는 서사적 공간으로의 연출이다.

나는 데뷔 때부터 사람을 그리는 초상화가였다. 또한 여전히 '사람'을 그린다. '누군가'가 아닌 익명의 '누구나'를 그리고 있다. 그들의 태도와 삶을 통해 이 사회의 '진실한 풍경'을 담아내려 한다. 작업을 통해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기 바라며 오늘을 기록한다.



2024 'STEAL CUT_진실의 탐닉' 전시전경



STEAL CUT_진실의 탐닉, 합판커팅 후 먹, 콩테, 좌 85×52 cm, 우 83×30 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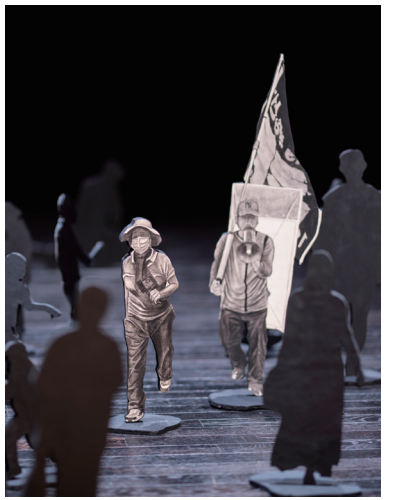


STEAL CUT_진실의 탐닉,
합판커팅 후 먹, 콩테, 69×44 cm, 2024

장우석



2023 'STEAL CUT_암묵적 공존' 전시전경



STEAL CUT_암묵적 공존, 합판커팅 후 먹,
좌 27×12 cm, 우 48×19 cm, 2024



STEAL CUT_암묵적 공존, 합판커팅 후 먹,
34×16 cm, 2024

장우석은 2007년부터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2007), 전통 초상화 연구로 박사학위(2022)를 취득하였다. 동시대 사회의 사건과 군상을 탐구하며, 지역의 풍경과 사라져가는 흔적들을 드로잉으로 기록하고 이를 미니어처와 설치 작업으로 확장해 재구성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역과 사람, 그리고 기억에 대한 서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최근 주요 전시로는 «2026 지역예술기관 교류 전시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다›»(F1963 석천홀, 부산), «2026 특별기획전 ‹꼬레아 힙! KOREA HIP!›»(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5 Steal cut ‹타인의 시선› 展»(울산창작스튜디오131 미술관, 울산), «2025 기획공모전 ‹OE:HWANG: 강 너머 유적의 숨›»(비모어 스튜디오, 울산), «2024 Steal cut ‹진실의 탐닉› 展»(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서울관, 서울) 등이 있다. 또한 «2024 천인갈채상», «2023 우진청년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2025 창작스튜디오131, 2026 연동문화발전소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6 민주공원
6월민주항쟁 기념 전시
청년작가 공모전

파도는 멈추지 않고
모래 위에 글씨를 쓴다

김유경
나나와 펠릭스
박정원
장우석

전시기간
2026.6.9.—8.2.

전시장소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관람시간
화-일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주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민주공원

문의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790-7482
www.demopark.or.kr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영주동 산10-7)